

#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염계정<sup>1</sup> · 김지현<sup>2</sup> · 박찬혁<sup>3</sup>

<sup>1</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sup>2</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3</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Experience of College Life of Adult Mal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Gye Jeong, Yeom<sup>1</sup> · Jihyun, Kim<sup>2</sup> · Chan Hyuk, Park<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Assistant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Associate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4호 2023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4, December. 2023



#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염계정<sup>1</sup> · 김지현<sup>2</sup> · 박찬혁<sup>3</sup>

<sup>1</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sup>2</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3</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Experience of College Life of Adult Mal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Gye Jeong, Yeom<sup>1</sup> · Jihyun, Kim<sup>2</sup> · Chan Hyuk, Park<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Assistant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Associate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Incheon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male students' life experience who started studying late for nursing.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8 male nursing students from 3rd to 4th grade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 Findings included 7 main themes and 15 themes. The main themes concerning mature male students were 'Entering school to start a second life.', 'Need to adapt to unfamiliar learning methods.',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emphasizing courtesy.', 'Practice in the field with a attitude.', 'The reactions of those around me are varied, but they support me.', 'Deali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Hope for successful employment.'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male students' experience who started studying late for nursing. These results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support mature male students in nursing.

**Key words :** Nursing, Male, Student,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보면, 2002년부터 도입된 수시전형과 특별전형이 확대되어 4년제 대학교의 만학도 전형 모집 정원은 2019학년도 793명에서 2024학년도 2,589명이 돼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1].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일반전형에서도 만학도에게 유리한 면접 비율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만학도는 32,700명으로 전체 신입생 중에서 20%의 비율로 나타났다[2]. 이러한 입학전형의 변화로 간호학과에도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률이 증가하면서 25세 이상의 만학도가 늘고 있다. 만학도는 입학전형 자격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연령이거나 대학 진학 적령기가 지난 성인 학습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2], 2025년부터는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대학 간에 상이했던 연령 기준을 통일하게 되었다[1]. 만학도에게 대학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보다 교육 활동을 체험하는 장소로 인식된다[3]. 만학도는 입학 전 학습 경험에 따라 입학 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받고, 어린 학생들과의 경쟁, 학습시간 부족, 부정적인 인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또한, 최근에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젠더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5,6].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간호대학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0년에 1.8% 이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1년 11.2%, 2022년에는 2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7]. 2022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중 남자간호사 합격자는 3,648명(15.6%)으로 2004년 121명에 비해 약 30배 증가하였다[8]. 이처럼 간호학 전공 남학생의 증가 추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만학도 남학생도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 이러한 간호학과 입학 정원의 변화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공인 만학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0-13]. 또한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기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도 여러 건 진행되었다[14-20]. 그러나 최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간호학과로 새로 유입되고 있는 만학도 남학생들만의 경험은 어떤지 여학생과 구분하여 따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만학도 남학생이 겪는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로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만학도 남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대학 생활 경험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그 경험들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21].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사실보다는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을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고 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원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간호학과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과 의미구조는 무엇인가?’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인천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입학 당시 나이가 25세 이상인 간호학과 남학생 중 임상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3, 4학년 8명으로 임의 표본 추출하여 모집하였다.

### 3. 연구자 훈련

공동연구자 2인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 학술세미나에 다수 참석하여 질적 연구 수행능력을 연마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참여자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천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내의 조용하고 사생활 보호가 되는 공간에서 일대일 개별 면담을 40분 이상 실시하고 대상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사전 동의하에 녹음한 후 바로 필사하였다. 이전의 분석 내용과 비교하여 더 이상 새로운 진술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와 면담하기 전 일상적인 대화를 하여 참여자가 편안한 느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가 대답한 내용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확실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되물어서 확인하였다. 참여자가 자신의 느낌과 경험

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한 다음,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학과로 입학하게 된 동기, 간호학과 수업 경험, 임상 실습 경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본인의 생각, 경제적인 어려움의 경험 등의 연구 질문으로 범위를 좁혀나갔다. 참여자가 입학 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최근 느껴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 5. 자료 분석

참여자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전체적인 인식, 의미 단위 분석, 의미 단위의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과 일반적 구조로의 통합 등 4단계로 분석되었다[21]. 첫 단계인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단계에서는 참여자와 면담 필사 내용을 출력해서 반복하여 읽고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참여자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간호학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된 내용을 반복하여 세밀하게 읽으면서 의미마다 색깔이 다른 펜으로 밑줄을 그어 227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27개의 의미 단위들을 대조해 가면서 유사한 의미 단위끼리 묶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해 가면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학문적 용어에 따라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이것들을 다시 출력하여 다시 원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 단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학문적 용어로 기술된 의미 단위로부터 총 7개의 중심의미와 15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을 일반적 구조로 진술하였다.

### 6.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 [23]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진실성(credibility)은 연구 결과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으로, 공동연구자 2인은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반복해서 읽고 도출된 연구 결과가 참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참여자의 진술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적절했는지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찾아낸 의미 단위들이 참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연구참여자 중 2명과 검토하여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받았다. 두 번째,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적용성(applicability)으로 연구 결과가 연구 상황이나 다른 장소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다른 만학도 남학생들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었다. 세 번째, 신뢰성(dependability)은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지속적이고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면담에서부터 분석까지 모든 자료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Giorgi의 연구방법과 분석 절차를 충실하게 따랐다. 네 번째, 확실성(confirmability)은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들의 만학도 남학생에 대한 선 이해가 본 연

구에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괄호 표시로 구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선행문헌에 대한 고찰을 자제하였다.

## 7. 윤리적 고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우선 연구목적과 방법이 적힌 연구 설명서를 제공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필사를 위한 녹음도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면담 후 선물을 지급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특성을 보면, 입학 당시 나이가 25세에서 47세로 다양하였으며 평균나이는 30.4(±7.03)세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8)

Participants	Age at admission (years)	Marital status	Previous education	Previous majors	Previous careers	Military service
1	47	single	Associate degree	Computer network	Administrative work for 20 years	Experienced
2	29	single	Associate degree	Applied music	Hospital assistance work for 4 years	Experienced
3	38	married	master's degree	Law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English tutor for 10 years	Experienced
4	28	single	Associate degree	Advertising marketing	Working for a semiconductor company for 2 years	Experienced
5	25	single	Bachelor's degree	Social welfare Counseling psychology	-	Experienced
6	27	single	High school graduate	Nursing drop out	Working as a nursing assistant for 6 years	Experienced
7	26	single	High school graduate	-	Hospital assistance work for 2 years	Experienced
8	32	single	Bachelor's degree	Plant and environmental materials engineering	Work in a garden for 5 years	Experienced

이전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대상자마다 다양하였고 의료보건계열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자 모두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기혼은 1명, 미혼이 7명이었다(Table 1).

## 2. 간호학과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구성요소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으로 7개의 중심의미와 15개의 주제가 확인되었다(Table 2).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중심의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입학함’, ‘익숙하지 않은 학습방식에 적응해야 함’, ‘동료에 대한 조심성 있는 응대와 배려’, ‘진지한 태도로 현장에서 실습함’, ‘주변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응원해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함’,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함’이었다.

### 1)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입학함

#### (1) 전망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함

이전에 쌓았던 학력이나 경력을 뒤로하고 간호학을 새롭게 공부하게 된 이유로는 간호직이 향후 AI로 대체할 수 없는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였다. 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관련 현장에서 직무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고 또한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가족 중에 의료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도전하려고...간호가 다방면으로 제일 많이 활동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활동이나 해외도 갈 수 있고, 또 무슨 복지시설 봉사 그것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면허증이 있으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내 꿈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참여자 1)

“사회복지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이제 뭐를 할까 좀 많이 고민하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의료계열을 쓰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썼었고 또 이제 물리 치료, 간호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었는데 주변에 간호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현직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면허증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인 것 같아서요.”(참여자 5)

#### (2) 주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함

간호학이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를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점차 나이가 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 학문이라 도

Table 2. Main Meanings and Themes

Main meanings	Themes
Entering school to start a second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 have a promising job.</li> <li>To learn academic knowledge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those around you.</li> <li>Gained courage as the number of male students increased.</li> </ul>
Need to adapt to unfamiliar learning meth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re is a lot of learning, but memorization is not as easy as before.</li> <li>Needing to adapt to non-face-to-face classes and new learning equipment.</li> </ul>
Cautious response and consideration to colleag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ing careful not to disturb other students.</li> <li>Wanting to be considerate and understanding other students.</li> </ul>
Practice in the field with a serious att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ood compli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of the hospital.</li> <li>Clinical training is considered a valuable experience.</li> </ul>
The reactions of those around me are varied, but they support 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y acquaintances are amazed that I entered nursing school.</li> <li>At the hospital, they are not surprised that it is a mature and male student.</li> </ul>
Deali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ying my own tuition and pocket money.</li> <li>Dealing with present difficulties with hope for the future.</li> </ul>
Hope for successful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ployment should take age into account.</li> <li>Wanting to work for a long time after getting a job.</li> </ul>

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면허증 취득 후에는 주도적으로 대상자를 직접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입학하였다.

“제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온 이유는 인간에 대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거랑 뭐가 매치가 될지 좀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고 요즘에 말하는 MBTI도 INFT라는 거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에는 법학을 배우면서도 역올하게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헬스 리터러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하고 결혼한 경험 속에서 이 사각지대들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나이에 어떤 특별한 메이저 필드에 있기에 어려우니 내가 가진 생각들과 내가 기술을 좀 더 가지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또 저도 외국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약할 때가 건강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니까 이 사람들에게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배운 것을 통해서 퇴원 후에라도 진짜 돌볼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이 살아가는 삶에 제가 좀 더 깊게 갈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한데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이 간호학이라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참여자3)

### (3) 남학생이 늘어서 용기를 가짐

간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입학률도 높아졌고 병원에서 남자간호사도 많아지고 있어 이전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간호학과 입학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원래 제가 20살 되기 전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간호사시고 그 당시 20이년도까지만 해도 남자간호사가 많지 않았고 남자 간호대학생도 많지가 않았어요. ‘여자 집단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으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건대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남학생

을 뽑는 보건대가 많지 않았고요... 2019년 수시에 대졸자 전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한번 해봐라, 네가 여태까지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너무 막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형들 중에서도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고 간호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입학하기로 했어요.”(참여자 4)

## 2) 익숙하지 않은 학습방식에 적응해야 함

### (1) 학습량은 많은데 암기가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음

간호학과는 전적 대학의 전공에 비해 학습량도 월등히 많고 난이도가 높는데, 어린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암기능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이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실히 이해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의료보건계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생소한 단어들과 방대한 학습량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부담이 되었다.

“단순 암기가 적용돼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 반복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아 그거는 이거다, 라고 알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한 번 어딘가에서 그냥 말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냥 암기가 바로 되더라구요... 자간증이랑 자간전증이 뭔지, 그리고 이건 언제 나타나는지 분명 가르쳐 주신 건 아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풀고 거기서 또 이해 안 되면 설명 보면 또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참여자 2)

“저는 의학용어 외울 때도 몇 페이지 막 쓰면서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외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걸 다 외우니 물었더니 그냥 보면서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때 교수님이 좀 복잡한 이론을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심장의 기전이 어떻게 이렇게 병리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하시면 저는 이해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주위의 서른살 형도 그렇고 또 나이 좀 있는 여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이 좀 어린 20살 아니면 21살 그런 애들이랑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는 도저히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도 이해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그들한테는 부족해 보인다.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참여자 7)

## (2) 비대면수업과 새로운 학습 장비들에 적응해야 함

COVID-19로 인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운 디지털 학습 장비나 온라인 학습 매체 사용법을 배우고 능숙해지는 과정이 크나큰 도전이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요. 거의 20년 좀 넘어서 하다 보니 아이패드 가지고 하고 또 뭐지 애플 키펀하고 피피티 만드는 게 엄청 어렵던데요.”(참여자 2)

“코로나가 그때 점점 확산되고 있을 때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뉴스가 매일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 번 걸리면 죽는 거 아닐까 정도로 해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왜 아무도 간호학도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줬지, 너무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과제를 그날 안 하면 막 붙어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포털에다가 과제를 올려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를뿐더러 생소했거든요. 저는 전문대를 이미 한번 졸업한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이 사실 어려웠어요.”(참여자 4)

“제가 그래도 테크놀로지의 막바지에 들어선 세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세대는 본인이 최후의 최종적인 세대라고 스스로 느끼고 어린 친구들과 만나면 당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전자기기나 컴퓨터도 저 있을 때 다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 사용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기분도 들었고 친구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길래 하나 사서 써보고 나니까 또 생활이 또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제가 그런 걸 다 따라가고 있단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8)

## 3) 동료에 대한 조심성 있는 응대와 배려

### (1)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함

만학도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는 나이 어린 동기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언행으로 피해를 주지 않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다. 이전 대학생 때와 다르게 여학생이 많은 학과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반면에 교수님과 같은 연장자에게는 잘 응대하는 안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보였다.

“저는 제가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대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존댓말을 했어요. 그 나이가 저보다 몇 살이 차이 나건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게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워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계속 제가 존댓말을 쓰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제가 원체 윗사람한테는 살갑게 잘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얼어붙고 괜히 뭔가 말이라도 잘못할까 봐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단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교수님을 대하거나 아니면 실습지 나가서 높은 팀장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을 걸거나 궁금한 걸 질문할 때 아주 수월한 거 같아요. 상대방이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물어봐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참여자 4)

“사실 제가 첫 번째 대학을 07년도에 현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학생회장 같은 것도 하고 교수님이 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동아리도 몇 년씩 계속했기 때문에 동기끼리 사이가 좋고 선배배와 술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노는 게 많았는데 간호대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없이 수업만 거의 진행을 많이 했죠. 그래도 동아리에 한 번 나갔었는데 여기 있는 게 좀 방해고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에 내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부분이 있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8)

### (2)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함

학과에 적응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학생과 두루 친하게 지내고자 하였고 연장자라는 권위를 세

우지 않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간혹 어린 동기들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지라도 감내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욕심을 버리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처음에는 이게 나이 때문인 건지 두 번째 학교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초반에는 내가 나대면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일 것 같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왜지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고 제가 여자 학우들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알아서 모이게 되었고 거기서도 최대한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약간 가벼워 보이게 행동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성격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참여자 2)

“기분 나빠도 두루뭉술하게 대처하고 넘기고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그냥 맞춰주는 거죠. 몇몇 여학생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봤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토라지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어서 그냥 아예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참가자 5)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남자애들을 저희가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뭘 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과제 제출 날짜를 잊어버리거나 덤벙대면 진짜 형처럼 막 케어해주고 챙겨주었어요.”(참여자 7)

#### 4) 진지한 태도로 현장에서 실습함

##### (1) 병원조직과 환경에 잘 순응함

군 복무와 사회생활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술이 있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편이어서 임상 실습하는 동안 병원조직과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었다. 이전에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능숙한 대처능력을 보여서 현장지도자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어린 친구들은 논리가 맞아야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서 실습할 때 힘들더라도 내내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게 맞다 여기지만 어린 친구들은 왜요, 가 먼저 나오죠, 반면에 저나 아니면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왜요?’가 잘 안 나오죠. 그냥 하라면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2)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선배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은 태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전혀 태움이 아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개적인 장소였던 것뿐이지 그게 태움이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나랑 약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다르긴 하구나...제가 예전에 미숙하게 일했을 때 선임에게 혼이 났던 적 있었어요. 그 당시 선임이 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 준 거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를 위에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잘못을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여겨요.”(참여자 4)

“눅치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병원 짬밥이 있긴 하구나, 그 병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기 꼭 가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빠져야겠다, 알아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따라다녀야 하니까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계속 실패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갔거든요. 선생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보통 환자들이 좀 해달라는 거 위주로 실습했습니다.”(참여자 6)

##### (2) 임상 실습은 귀한 경험이라고 여김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입학한 만큼 열심히 배우고자 하며 특히 임상 실습은 간호 실무나 병원 행정 등 취업을 앞두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귀한 시간이라 여기고 진지한 태도로 실습에 임하였다.

“병동 끝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대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진짜로 거기에만 박혀 있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인제 준비하거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가서 인제할 때 그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는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더라고요. 귀한 시간이죠, 그런 거 어디서 봐요? 그리고 또 옆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는 왜 이 용량을 왜 버리는 거냐 이 용량은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인제할 때는 왜 라인에 인제하냐 등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들, 책에

서는 못 보는 것들을 보면서 막 물어보죠.”(참여자 7)

“일부 학생들은 마지못해 실습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케이스에 중점을 많이 두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실습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분위기나 업무 환경에 대한 일 같은 것 좀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이런 말이 거창할지 모르지만 일단 실습을 나갈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1인분을 한다고 하면 한 3인분을 할 각오로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0.1이나 0.2도 겨우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거리적거리지 않게 하거나 혹은 뭘 달라고 할 때 재빨리 움직인다든가 하는 태도로 조금이라도 좀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처치를 하다가 학생분 좀 빨리 좀 챙겨주세요 하면 저는 빨리 가져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달리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가 누구한테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이라...”(참여자 8)

##### 5) 주변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응원해줌

###### (1) 지인들은 간호학과 입학에 신기해함

간호학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 세대의 나이 드신 분들은 놀라워하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비슷한 연배의 친구와 지인들은 간호학과 합격을 부러워하고 잘한 일이라고 응원을 해주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본인들도 잘 모르시긴 하지만 예전에 몇 가지들은 이야기로 힘들다더라, 괜찮겠냐, 라는 말을 막연하게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왜 힘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연하게 깔려 있는 건 일단 간호사 직종 자체가 힘들다는 이미지랑 아무래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대다수 여자 안에서 소수의 남자로 지내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기 전에도 아무래도 육체적인 일은 조금 더 남자가 많이 도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참여자 2)

“많이 힘들겠네, 란 반응이에요.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고 늦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요. 당시에 직장 다녔을 때는 빨리 RNI 돼서 나중에 다시 일합니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로 보는 거죠. 제 친구들은 대학 나온 애들이 없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모르는 사람들은 반응이 조금 놀라워하죠. 제 이미지가 그렇게 간호와 관련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대표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간호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란 반응이에요. 병원 다닌다는 그 마스크가 아닌가 봐요. 간호학과에 오는 남자들이 보통 호리호리하고 얼굴 하얗고 그렇게 예쁘장한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아닌데... 다 섞여가지고 현역들도 현역들 나뉘고... 여기 학교는 남학생들이 많더라고요.”(참여자 6)

“사람들이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냐, 좋겠다. 그런 애기하시고 그다음 나오는 말이 바로 학교가 어디냐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인지도가 어떻든 간에 간호학과라 그러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간호학과다, 했더니 남학생을, 거기예다가 나이드 많은 학생을 아마 대부분 처음 봤을 거라 신기해했어요.”(참여자 7)

###### (2) 병원에서는 만학도 남학생을 신기해하지 않음

병원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만학도 남학생이라는 점에 개의치 않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간호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궁금해했지만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기도 하였다.

“저희가 실습지에서 대부분 했던 게 혈압 측정이다 보니 환자분들이 학생이나 물어봐 주시고 언젠가 한 번은 나이 드신 할머니셨는데 물리치료가 예정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저 데려가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리 치료사이거나 이송해 주시는 직원으로 아신 거죠. 근데 환자분들 대부분이나 보호자들도 진짜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따로 신기하게 보지는 않았어요.”(참가자 7)

“실습하는 학생이지만 보호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니 학생과 직원 구분이 안 되

는구나, 를 느꼈어요. 나이가 지긋한 미화 직원분이 왜 왔어, 라고는 물어보셨지만, 남자가 그런 걸 왜 하더라는 반응보다는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네가 왜 그런 걸 하지 의문은 있어도 잘했다, 이제 간호사가 되면 오래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참여자 8)

## 6)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함

### (1) 학비와 용돈은 스스로 마련함

직장생활을 접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만큼 가능하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한다.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계속해서 교내근로나 기간제 근무를 병행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고 있다.

“처음에 여기 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낼 때는 제가 이전 병원에서 2년 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사용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를 위해서는 방학 때 근로나 알바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어서 사실 어쩔 때는 많이 쪼들리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또 나가니... 그런데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있어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더치페이를 하는 문화예요. 음료수 같은 거는 제가 좀 더 내는 경향이 있지만요.”(참가자 7)

### (2)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함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간호학을 전공하게 된 건 후회하지 않는다. 간호학과에 만족도가 많이 있다 보니 나 혼자만 만족도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더욱 안심이 된다. 경제적 부담감은 있지만, 현재 학생으로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앞으로 졸업 후 미래가 많이 기대되고 있다.

“사실 나이가 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일 많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일이 30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겠다, 지금 입학하는 애들은 20살인데 거의 10살 차이가 나니까 몇 년 재수해도 내가 제일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

상 들어오니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어서 다행이다. 안심했었어요.”(참가자 4)

“다시 오길 잘했다. 그냥 이거를 함으로써 내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업도 한 번 맡아먹고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운명이었나 보다. 간호학과라는 데가 병원에서 일을 안 한다 해도 그냥 간호사만 돼도 내 운명을 지키는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게 너무 기뻐요.”(참가자 6)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먼저 했을 때 또래 친구들은 대학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부럽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 스물넷 다섯 그쯤 되니까 좀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대학 갔걸, 그렇게 해서 1학년 딱 들어와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못 해볼 것 같다 하면서 1학년 때부터 이것저것 참여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나한테 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뭐든 해보자 그런 생각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학생 상담 센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도 엄청 많이 하고 학교 내에 간호학과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년 4학년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후유증이 꽤 클 것 같다. 여기 간호학과에 대한 애착이 좀 커진 것 같아서 졸업할 때쯤에는 좀 많이 울 것 같다...”(참여자 7)

## 7)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함

### (1) 나이를 감안하고 취업해야 함

간호사는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희망하는 병원에 취업이 될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특히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더 불안하다. 채용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자 한다.

“일단은 제 나이가 사실 애매하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남자는 또 30대 이상도 가능한 병원이 있다. 지원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 지원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은 해보겠지만 떨어지면 좀 내가 나이 때문에 떨어졌을까, 이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성적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피해의식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계속 하염없이 나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라고 자기 제 살 깎아 먹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학병원 대신 2차 종합병원에 지원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수 선생님이랑 같은 나이인데 내가 신규로 일하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게 느끼겠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드는데 또 병원 입장이랑 관리자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참여자 4)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국시만 통과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럼 취직이 문제인데 취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좀 껄껄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나를 어디서 받아줄까,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내가 나이도 있는데 라는 기분도 조금 들고 이것 이제 대학교를 제가 두 번째 다닌 거라 사실 첫 번째 다닌 거는 성적 맞춰서 가서 그냥 이공계를 선택한 것인데 이제 두 번째 대학교를 지금 왔는데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잘야는 건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나를 뽑아주는 병원이 있나 이런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습득력이 늦을지라도 뭔가 수행하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뽐히는 게 문제겠죠. 근데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젊은 친구가 웃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받아주신다면 가서 몇 년은 죽었다 하고 그냥 열심히 몸으로 배울 겁니다.”(참여자 8)

#### (2) 취업 후 오래 일하고자 함

오랜 학업 기간을 보내고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하였으니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이 목표이고 입사하고 나서도 낙오되지 않고 되도록 오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이 돈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한 1년, 2년만 근무하고 많이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마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들어요. 하다가 그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만두는 다른 친구들은 아직 력서리

가 남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비싼 취미생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럴 여유가 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한 5년이나 돼야지 다른 데 경력직으로 잘 가지 않겠습니까?”(참가자 8)

### 3. 간호학과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

참여자들이 경험한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이전 학력과 경험을 뒤로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암기가 예전만큼 되지 않고 비대면수업과 새로운 학습 장비들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임상 실습 때는 병원조직과 환경에 잘 순응하였고 실습은 귀한 경험이라 여기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다. 입학 사실에 대하여 주변의 반응은 다양하였는데 신기해하면서도 응원해주었다. 학비와 용돈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 나이를 감안하고 취업하고자 하며 취업 후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이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생 생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참여자의 진술에 포함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도출된 7개의 중심의미에 따라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생 생활 경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간호학 전공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첫 번째 중심의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입학함’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이전 대학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해본 경력이 있었고 그 배경 또한 다양하였다. 그런데도 간호학을 새롭게 공부하게 된 이유로는 간호직이 전망이 있고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실용 학문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만학도 또는 성인 학습자 관련 연구를 보면 학력의 결핍, 낮은 자존감이 학업 동기의 요소로 거론되었으나[15,24], 본 연구의 진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미 참여자들 대부분은 적령기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 경험이 있었고 직업적 진보가 목적인 학습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생활 만족도의 향상이나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진학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이전에는 간호학과 남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진학을 망설이고 다른 전공을 대신 선택하였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다시 도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 관계자들은 이들의 입학 동기와 학업 이유를 다시 규명하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익숙하지 않은 학습방식에 적응해야 함.’으로 참여자들은 기존에 익숙했던 학습방식으로는 간호학의 암기 위주의 방대한 학습량을 소화할 수 없었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 암기에 자신감이 없었다. 충분한 설명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만학도의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다[10,12-14,18]. 게다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임해야 했고 새로운 디지털 학습 장비와 온라인 학습 매체에 적응해야 했다. 남학생은 정보기술에 능숙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팬데믹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 양상은 다른 학생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15,16]. 일부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는 만학도나 성인 학습자의 학습적응과 관리적 지원을 위한 튜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학 전공인 만학도 남학생에게도 학습지원 역할의 튜터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중심의미는 ‘동료에 대한 조심성 있는 응대와 배려’로 참여자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왔고 직장생활 경험이 있어 계급이나 직급에 따른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여 어린 학생들에게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가 예의를

지키고자 하였고 상대방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주의 성향과 자기주장이 강한 다수의 학생들과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는 만학도 특유의 대인관계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여학생들에게 깽뚫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25]. 반면에 교수, 현장지도자와 같은 연장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린 학생들처럼 어려워하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안정된 의사소통 기술이 습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중심의미는 ‘진지한 태도로 현장에서 실습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 중에는 병원조직과 환경에 순응하고자 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임상 실습에 임하였다.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이에 대한 현장지도자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다. 체험을 통한 학습능력 획득이 만학도의 장점이므로 간호 실무 현장에서의 실습은 그 내용과 술기 종류와 상관없이 이들의 학습 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타의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두 번째 전공이고 특히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던 만학도에게는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은 소중하다 인식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기간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실습에 제한을 받았던 세대이므로 비슷한 시기의 실습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처럼 현장실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26]. 이들의 주 취업처인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학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재조명하고, 능숙한 의사소통과 현장 판단력이 있는 전문 인력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 번째 중심의미인 ‘주변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응원해줌’에서 참여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나이대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들은 아직 간호학 전공 남학생이나 남자간호사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남아 있었지만 비슷한 세대의 지인들은 공부 잘하는 학과로 인식하여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과 같은 의료현장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인식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간호사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예전보다 감소했지만,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5,25].

여섯 번째 중심의미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함’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전 대학에서 이미 학비 지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간의 연구를 보면, 만학도 여학생은 집안일과 육아라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학습하는 고충을 호소하였다[16,17,20,27]. 반면에 만학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부담은 적고, 대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간호학과 만학도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들이 느껴왔던 소수자로서의 소외감은 줄어들고 연대감을 갖고 서로 의지한다는 최근 연구처럼[19,27], 참가자들도 만학도 간에 의지하면서 학과적응에 안정을 찾고 목표하는 바를 고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내하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중심의미인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함’에서 참여자들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취업처인 병원과 병원 시스템 및 문화는 만학도를 일반학생과 동등하지 않게 인지하고 대우한다는 연구[12]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에 대한 불리함과 다양한 부서로 배정받지 못하는 남자간호사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보다 시간과 비용을 두 배 이상으로 투자하여 무사히 중도하차 없이 학업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취업은 절실한 것이고 평생 직업으로 이어가길 희망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병원에서는 이들이 취업 후 중도 하차하지 않도록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늘어가고 있는 만학도 졸업생을 훌륭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들의 관점으로 대학 생활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만학도 남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입학하였고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만큼 대인관계에 신경 쓰고 임상 실습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대한 학습량과 익숙하지 않은 학업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만학도 남자 간호대학생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임상간호사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만학도 남학생의 대학적응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튜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육 운영 방식과 교육인프라가 상이한 환경의 남자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만학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임상 적응 경험 과정을 탐색하고 간호역량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 in 2023. [Internet] Seoul: 2023 [cited 2023 April 26] Available from: <http://www.kcu-e.or.kr/index.htm>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 Statistical Analysis of Education-Higher education statistics. 2022. p.29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44&menuSeq=0&itemCode=02&language=#>

3. Jeong Y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encourage adult learner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university learning experiences of broadcasting students. *Policy Tasks*. 2015;14:1-78.
4. Shin JC, Shin TS, Jung JS.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8;26(1);287-313.
5. Shin JH, Seo MH, Lee MI.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3):287-297. <https://doi.org/10.14400/JDC.2016.14.3.287>
6. Geraldine AM, Jacqueline AD. Job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2014;4(3):86-93. <https://doi.org/10.5430/jnep.v4n3p86>
7.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Internet]. Jincheon: 2023 [cited 2022 August 1].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index>
8. Korean Nurses Association. Nursing statistics yearbook [Internet]. Seoul: 2022 [cited 2022 August 1].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
9. Yu M, Kang KJ, Yu SJ, Park MS. Factors affecting retention intention of male nurses working health care institu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3), 280-289.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3.280>
10. Cho YM, Kim EJ, Sok SH.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2):671-68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71>
11. Park GS, Kang, HS. Matur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23;18(3):73-79. <https://doi.org/10.21097/ksw.2023.8.18.3.73>
12. Ha HJ. Positioning of mature nursing students at institutional and societal levels. *Humanities Studies East and West*. 2021;61:215-249. <https://doi.org/10.37498/HSEW.2021.08.61.215>
13. Byeon MK, Park SJ, Choi EY.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0;4(4):65-74. <https://doi.org/10.34089/jkn.2020.4.4.65>
14. Kim SH, Chung HI. Adapt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started their studies late. *Nursing and Health Issues*. 2016;21(1):1-28.
15. Kim MH, Cho EH.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epartment mature-age students major cours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2;8(4):19-26. <https://doi.org/10.17703/JCCT.2022.8.4.19>
16. Son SJ, Kim HJ.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Journal of Learner -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4):501-520. <http://doi.org/10.22251/jlcci.2017.17.24.501>
17. Kim YN, Cho HI. Ethnography on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college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22;29(2):81-113.
18. Kim H. Late-starting wome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9(5):143-154. <http://doi.org/10.22143/HSS21.9.5.11>
19. Kim SO, Byeon J. A study on college life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for nur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3;23(6):398-408. <http://doi.org/10.5392/JKCA.2023.23.06.398>
20. Baek KS. Experience of learning activity in the married nursing student.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 2011;12(1):49-58.
21. Giorgi A.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997;28(2):235-260.  
<https://doi.org/10.1163/156916297X00103>
22. Morse JM, Field PA.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Shin KR, translator. London: Chapman & Hall; 2004. p.31-33.
23.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2. p 27-33.
24. Kim JM, Choi YS. A life history study on women in 50s who started studying late: Focusing on life dimensions, turning points and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19(1):1-29.  
<https://doi.org/10.18205/kpa.2014.19.1.001>
25. Son HM, Oh SE, Jang, HY.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A meta-synthesis stud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4):391-405.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391>
26. Kwon SH, Kim YK, Bang MS, Ryu M.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2;28(1):57-69.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57>
27. Yang EJ, Kim KH.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among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majoring in nur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5):461-469.  
<https://doi.org/10.5392/JKCA.2017.17.05.461>